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명전거제어의 현황 및 발전 방향*

Personal Name Authority Control in Korean Public Libraries

심 경(Kyung Shim)**

목 차

- | | |
|--------------------|-----------------------|
| 1. 머리말 | 3.1 같은 외국인명의 다른 표기 형태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2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들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개선 방안의 제안 |
| 2.전거제어의 기능과 적용대상 | 4.1 검색 시스템 보완 |
| 2.1 전거제어의 기능 및 중요성 | 4.2 공유 전거파일의 구축과 협력 |
| 2.2 전거제어의 적용대상 | 5. 결 론 |
| 3. 주요한 발전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목록에서 개인저자명에 대한 전거제어의 적용 여부 혹은 적용 범위가 검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거제어를 활용한 검색 제현을 향상 방안을 제시한 후 궁극적으로 국내 공공도서관 전거제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KOLISNET, 및 열 개의 무작위로 선정한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에서 같은 외국이름의 다른 우리말 표기 형태와 성명 도치 형태 및 같은 국내인물의 다른 이름의 사례를 검색한 결과로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전거제어를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공공도서관들의 전거제어 미적용 현황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지레코드의 불완전성, 부정확성 및 일관성 결여, 검색방법의 문제점 등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명 검색 시 찾기와 모으기 기능의 향상을 위해 적절한 수준과 범위의 전거제어의 적용 필요성, 공유 전거파일의 구축 필요성,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검색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LC 목록이나 AMICUS와 같이 검색 질의 시 서지레코드 건수를 포함한 이름표목 리스트를 거쳐 서지리스트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 및 이에 관련된 개인명의 식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personal name authority control and its impact on the end user searching against OPAC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Further, it also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the recall ratio in author search with a minimal modification, system-wise and authority-wise, on the KOLISNET as a stepping stone for other public libraries. Finally, a long-term plan for establishing proper authority work in public libraries includ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briefly proposed.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authority works are conducted and examine how variant written forms of the same foreign name and variant names of the same person are treated, OPAC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OLISNET, and ten randomly selected public libraries were searched.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as performing authority control, even incomplete, the rest did not appear to conduct any form of authority control. As a spinoff of the research, it is observed that in many public libraries their bibliographic records and retrieval methods are inaccurate, lacking consistency, and incomplete. In sum,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1) as a start for authority work among public libraries personal name authority control should be conducted to enhance the identifying and collocating functions in OPACs, (2) a shared authority database, for which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authority database might be used, should be built for public librar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OPAC, 전거제어, 정보검색

Public Libraries, OPAC, Authority Control, Information Retrieval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6.10.20.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아이리스넷(shim@irisnet.co.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11월 16일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하 IFLA라 부름)의 국제목록규칙회의(IME ICC)에서 2003년 처음 공개한 '국제목록원칙선언(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초안)'은 목록규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원칙은 목록 이용자의 편의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목록의 기능이 찾기(to find), 식별하기(to identify), 선택하기(to select), 입수하기(to acquire or obtain), 그리고 항해하기(to navigate)임을 선언하고 있다(IFLA 2006). 이 같은 선언은 목록의 형태와 접근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든, 백여 년 전 Cutter가 천명하였던 목록의 목표인 찾기(검색, Location)와 모으기(집중, Collocation)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자제어는 이 같은 목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원도구로서 과거 카드목록에서는 표목을 통일하여 동일 저작을 한곳으로 모으거나 이형표목에서 채택표목으로 참조를 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일각에서는 구십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과 웹이 확산되고, 디지털 도서관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자제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잉된 검색결과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웹 검색의 혼돈 상태에서 전자제어의 기능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Tillett 1989), 근래 전산화 환경에서도 그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며 매체만

바뀌었을 뿐 방법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제어의 중요성은 그동안 국제도서관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IFLA가 '전자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Records, 이하 FRAR이라 부름)(초안)'을 공개하고 전 세계 도서관 및 목록전문가들의 리뷰를 요청함으로써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도서관계에서도 전자제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되어 왔으나(국립중앙도서관 2006; 오동근 2000; 최석두 1993), 실제로 전자제어를 실무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랜 몇몇 대학도서관 혹은 전문도서관만이 자체 전자파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전자제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고형근 2001; 박홍석 2001; 오동근 2000; 윤정옥 2002) 알려진 바가 없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전자제어에 대해서는 몇몇 도서관의 사례를 들어 전자제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이 단편적으로 언급된 적이 있을 뿐(윤정옥 2006), 그밖에 다른 연구에서 깊이 있는 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진 흔적을 찾기 어렵다. 공공도서관은 매우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열람목록은 이용자 편의성과 검색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의 다양성을 신중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든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잘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접근점에 전자제어를 적용시킬 필요성이 다른 어느 도서관에서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및 KOLISNET을 포함한 국내 공공도서관

목록에서 개인저자명에 대한 전거제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가 실태를 살펴보고, 전거제어의 적용 여부 혹은 적용 범위가 검색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후, 향후 공공도서관 온라인 목록에서 재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전거제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하여 도서관의 목록 및 검색 시스템에 관련된 제안과 더불어, 전거파일의 구축과 유지 방안에 관련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유지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종합목록인 KOLISNET, 그리고 무작위로 선정한 10개 국내 공공도서관의 목록을 대상으로 하여, 저자명 검색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명의 다양한 표기 형태들이 각 도서관 목록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즉 전거제어가 되고 있는지와 전거제어 여부에 따른 그들이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

- (1) 같은 외국이름의 다른 우리말 표기 형태: 스티븐 킹과 스테판 킹
- (2) 같은 외국이름의 성명 도치 형태: '킹 스티븐'과 '킹, 스테판'
- (3) 같은 국내인물의 다른 이름: 류시화와 안재찬

본 연구에서 검색 대상으로 채택된 작가인 Stephen King은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종종 스테판 킹으로 알려져 왔고, 당시에

번역 및 출판된 책들 가운데 일부는 그 이름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그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최근 간행되는 책들은 모두 일관성 있게 스티븐 킹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작가가 또한 Richard Backman과 Eleanor Druse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이름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한글표기 형태로만 검색해 보았다. 또한 동일 형태의 이름을 <한국목록규칙> 제4편의 21.2항 '접근점의 형식과 표기방법'에 규정된 대로 서양인명의 성명 도치된 형태로도 검색해 보았다.

아울러 국내 작가로서 한 사람이 다른 시점에 두 개의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경우로 류시화와 안재찬의 이름으로도 검색해 보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국내 공공도서관이 전거제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거레코드를 직접 검색하지 않고 OPAC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간접적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전거제어를 수행한다고 해도 전거레코드 자체는 사서의 업무영역으로 OPAC을 통하여 검색할 수 없으며, 둘째, 만약 전거제어가 안 되었을 경우,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특정 전거레코드 구축 방법이나 인명의 표기방식 등에 대한 소개는 하였으나 그들에 대한 판단이나 제안은 다루지 않았다.

2. 전거제어의 기능과 적용대상

2.1 전거제어의 기능 및 중요성

Taylor(2004)는 전거제어가 “목록에서 접근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적 형태(verbal form)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며, 그 이후에 이름들, 저작들 및 주제들 사이에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처리”라고 정의하였고, 최석두(1993)는 “서지 파일에서 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단체, 주제 등의 전거형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유지되도록, 모든 가능한 표현을 찾아내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접근점을 결정하고 상호참조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거제어는 목록에서 표목 혹은 접근점으로 표현되는 정보에 구조, 일관성과 통일성을 줌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정보와 관련된 모든 서지레코드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즉 목록검색의 재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전거제어의 기능과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도서관의 목록에 대해 갖는 가치에 대한 관심은 오래도록 존재해 왔고, 웹의 확산과 디지털 도서관 환경으로의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은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FRAR은 전거제어의 이용대상을 전거레코드 작성자와 참고사서, 그리고 도서관의 이용자라고 정의하고, 이들이 전거제어를 통해 수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찾고, 식별하고, 개념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임을 재천명하고 있다(Patton 2005):

- 찾기(Find): 명시된 기준에 일치하는 개체(entity)나 일단의 개체들을 발견하기(즉,

탐색기준으로서 개체의 속성(attribute)이나 관계(relationship)를 이용하면서 단일 개체나 일단의 개체를 찾기)

- 식별하기(Identify): 개체를 식별하기(즉, 표현된 개체가 찾는 개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유사한 특성을 갖는 둘 이상의 개체들 사이에서 구별하기 위하여)
- 개념화하기(Contextualize): 개인, 단체, 작품 등을 맥락 안에 두기; 둘 이상의 개인, 단체, 작품 등 사이에 구별하기 혹은 개인, 단체 등과 그 사람, 그 단체 등이 알려져 있는 이름 사이에 관계를 명확히 하기
- 정당화하기(Justify): 접근점이 기반하고 있는 이름이나 이름의 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거레코드 생성자가 갖는 근거를 문서화하기

이들 가운데 처음의 세 과정은 사서, 특히 전거제어 담당사서, 및 도서관의 일반이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마지막 과정은 사서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거제어가 표목의 고유성, 일관성 및 표준성을 위한 작업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전거제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기원은 Cutter의 도서관 목록의 목표로 소급할 수 있고, 1961년의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를 거쳐, 최근의 FRBR 및 FRAR에까지 이어지고 있다(Wolverton 2005). IFLA Working Group on Functional Requirements and Numbering of Authority Records(FRANAR)이 작성하여 초안으로 공개한 ‘전거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AR)’은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unc-

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하 FRBR이라 부름)에서 다루어진 주요 개념들을 전거레코드의 작성과 활용을 위해서 적용시킨 것으로(Patton 2004), 사실상 전거제어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의한 사항을 선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웹 환경에서 전거제어의 중요성은 서지제어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Tillett (2001)이 제창한 것 이외에도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도서관 전거파일의 개념을 출판계, 권한관리, 도서관, 식별자 및 기술 커뮤니티의 상거래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다룬 Project InterParty와 같은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고 (MacEwan 2004),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ISAAR (CPF)(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EAC(Encoded Archival Context) 등을 통해 전거제어를 적용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Pitti 2004; Vitali 2004; 김성희 2005).

또한 최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됨으로써 초기의 전거제어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 전거제어가 보다 가속화될 수 있게 되었다(Wolverton 2005). 이를테면, 웹의 이용, OPAC의 확산, 전거제어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및 기술의 새로운 발전을 반영하는 서지레코드의 변화, 상업적 벤더의 자동화된 전거제어 시스템 개발, Z39.50 프로토콜과 같은 발전이 전거레코드의 생성, 입수, 전송 및 국제적 공유까지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2.2 전거제어의 적용대상

목록의 서지 레코드에서 전거제어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MARC21 서지레코드 포맷에 따르면, 1xx, 4xx, 6xx, 7xx 및 8xx 표목필드들이다(Fritz and Fritz 2003). 다시 말하면, 목록의 서지레코드 상에 나타나는 모든 개인명과 단체명, 지명, 회의명을 포함한 이름 데이터, 그리고 통일서명과 총서명을 포함한 서명 데이터, 및 주제명에 전거제어가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도서관 목록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찾는 개체인 저자명, 저작 및 주제가 모두 전거제어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이다(Yee and Layne 1998).

국내 도서관들의 사례를 보면, 이처럼 접근점이 될 수 있는 모든 이름이 아니라, 참조가 필요한 이름에만 한하여 전거레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적용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인명 주제명은 전체를 대상으로 전거레코드를 만들어주지만, 단체 및 지명주제명은 참조가 필요한 이름에만 전거레코드를 만들어 주었다(박선희 2006; 오동근 2000).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2000년 무렵에는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서명만 전거레코드를 만들어 주었으나, 현재는 MARC21 포맷으로 인명 주제명 및 단체주제명, 총서명 전거레코드도 만들어 주고 있다(박선희 2006).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그리고 일서, 중국서에 나타나는 저자명으로서 개인명을 중심으로, 특히 한국인명보다는 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일본, 중국, 서양인 등의 외국인명을 중심으로 전거레코드를 만들어 주고 있다(기민

도 2006; Lee and Lee 200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거레코드를 만들어 주는 대상, 다시 말하면 전거제어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대상인 개인명의 예를 보면, 이용자가 목록에서 인명으로 찾고자 할 때,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이나 다른 표기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이광수, Mary Roverta Smith와 같이 완전한 개인명, (2) 세종대왕과 같은 칭호 (3) 세종과 같은 약어 표현, (4) 별명, (5) 필명, 자, 시호, 아호 등의 호, (6) 공식적인 이름, (7) 한자의 한글음, (8) 외국인명의 한글표기, (9) 외국인명의 다른 한글표기, (10) 한글표기 인명의 저자에 의한 로마자 표기, (11) 한글표기 인명의 표준번자표에 의한 로마자 표기, (12) 비로마자 인명의 자국어표현, (13) 비로마자 인명의 자국어에 대한 로마자 번자, (14) 비로마자 인명의 다른 로마자 표현, 및 (15) 도치명 등과 같이 다양할 수 있다(최석두 1993). 전거제어를 통하여 이들 가운데 한 이름이나 표기형태가 채택표목으로서 접근점으로 제시되고, 그 밖의 다른 이름과 표기 형태는 참조됨으로써, 이용자가 어떤 이름 혹은 표기 형태를 갖고 검색을 시도하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최석두가 주장한 바(1993)와 같이 무전거 시스템을 채택하여, 같은 개체의 특정한 이름이나 이름의 형태를 채택표목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개체의 모든 이름들과 이름의 형태들을 표목으로 채택하고, 이들 사이에 참조나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검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전산화된 목록환경에서 그 실효성을 더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채택표목을 정하고, 다른 형태들은 참

조나 링크로 연결해 주는 전통적인 전거제어의 방식이나 무전거 시스템이나를 가리지 않고 전거제어의 실태와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두 방식 모두 이용자 검색, 특히 전산화된 환경에서는 동일 인물의 저작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는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3. 주요한 발견

아래 <표 1>은 국립중앙도서관, KOLISNET 및 열 개 공공도서관 목록에서 앞 절에서 제시한 같은 외국인명의 다른 표기 형태 및 같은 국내인물의 다른 이름들로 검색된 레코드 수를 보여준다.

다음의 검색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간추리자면, 먼저 Stephen King의 경우처럼 같은 이름의 다른 표기 형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제한적으로 전거제어를 수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서관의 목록들은 모두 전거제어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류시화와 안재찬의 경우처럼,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들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다른 공공도서관들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도 역시 전거제어를 적용시키지 않았다. 즉, 두 이름 사이에 아무런 링크나 참조 등의 장치, 혹은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음에서는 <표 1>에 요약된 검색 결과에 대해 전거제어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특성들을 사례별로 서술하도록 한다.

〈표 1〉 각 도서관 목록의 이름의 표기 형태별 검색결과

도서관명	스티븐킹	스테판킹	킹, 스티븐	킹, 스테판	류시화	안재찬
KOLISNET	372	55	386	33	895	76
국립중앙도서관	73	13	116	116	119	7
경북 상주도서관	17	3	17	3	45	1
경기 포천도서관	31	0	32	0	43	0
충남 성환도서관	20	2	25	2	51	1
충남 보령웅천도서관	14	2	18	1	44	1
충북 증원도서관	17	4	12	1	36	0
부산 명장도서관	23	0	27	0	47	1
경북도립 구미도서관	28	6	30	6	58	2
서울 정독도서관	47	5	57	0	79	1
진해시립중앙도서관	3	2	48	0	82	2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32	8	37	9	85	2

3.1 같은 외국인명의 다른 표기 형태

(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에서는 같은 외국인명의 다른 표기 형태들을 다루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표기 형태를 표목의전거형태로 채택하고, 채택되지 않은 다른 표기 형태들로도 검색될 수 있게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이 목록에서 저자명 '킹, 스티븐'과 '킹, 스테판'으로 각각 검색한 결과인 레코드 수가 같고, 결과에 포함된 서지레코드들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레코드들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표기 형태들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동일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는 있다는 의미이다. 2006년 6월 당시의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에서 표목은 통일되어 있었지만, '킹, 스테판'으로는 검색할 수 없었던 것(윤정옥 2006)에 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양인명의전거표목 형태는 'King, Stephen'

과 같이 로마자로 표기하는 정책을 2001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또한 서양인명을 기술할 때는 로마자든 한글이든 관계없이 성과 이름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검색 시스템에는 아직 전거와 서지 레코드를 링크하여 찾지 못하고, 서지 레코드에 입력된 사항만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기민도 2006).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에서 검색한 서지레코드의 사례인 〈그림 2〉를 보면, 아직까지는 실제로 기존에 만들어진 서지레코드의 표목이전거레코드의 채택 표목 형태로 변환되지는 않았으나, 〈그림 A〉를 보면 검색은 현재전거레코드를 참조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거마크	
001KAC199614833	▲
00519990420151339	▲
009961022 n acnnnssss	▲ B A B n▲
1001 waKing, Stephen, wd1947-	▲
4001 waBachman, Richard, wd1947-	▲
4001 wa킹, 스테판, wd1947-	▲
4001 wa킹, 스티븐, wd1947-	▲
4001 wa바그먼, 리처드, wd1947-	▲
578 wa미국 소설가	↔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전거 레코드

Accession Number	Call Number	Title
001	KMO200417540	
005	20040705095650	
008	040616s2004 ulk 000 f kor	
020	1 ▼a8982738002(세트)	
020	▼a8982738088(상) ▼g04840: ▼c13000	
020	▼a8982738096(중) ▼g04840: ▼c13000	
020	▼a898273810X(하) ▼g04840: ▼c13000	
041	1 ▼akor▼heng	
	▼IEM3059561 ▼v7	
	▼IEM3059562 ▼v7 ▼c2	
049	0 ▼IEM3059563 ▼v8	
	▼IEM3059564 ▼v8 ▼c2	
	▼IEM3059565 ▼v9	
	▼IEM3059566 ▼v9 ▼c2	
052	01 ▼a843 ▼b3-507 ▼c7-9	
056	▼a843 ▼24	
082	▼a813.54 ▼221	
245	00 ▼a그것. ▼n상, 중, 하 ▼d스티븐 킹 지음; ▼e정진영 옮김	
260	▼a서울: ▼b 할금가지, ▼c2004	
300	▼a3책; ▼c22cm	
440	00 ▼a스티븐 킹 걸작선; ▼v7 - 9	
507	10 ▼aking, stephen	
507	10 ▼lit	
650	8 ▼a미국 소설[美國小說]	
653	▼a그것 ▼a스티븐 ▼a킹 ▼a미국소설	
700	1 ▼a정진영	
900	10 ▼a킹, 스티븐	
900	10 ▼a킹, 스테판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서지 레코드 사례: 저자명 '킹, 스티븐'

〈그림 A〉는 이용자가 저자명 '킹, 스티븐'을 질의어로 입력하였을 때, 시스템이 자동 구성한 검색질의어를 보여준다. 이 검색질의어는 검색결과와 간략목록 디스플레이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 간략목록을 다운로드하면 워드패드 파일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자동 구성된 검색질의어가 이름을 탐색할 때 전거레코드에 수록된 채택 형태와 비채택 형태에 대한 매칭을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검색에서 전거레코드를 참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검색 질의어 : (((<LANG/ZT>(킹AND)스티븐)

<IN>ZONE_AUTHOR) <OR>(KINGSTEPHEN<IN>ZONE_AUTHOR) <OR>(BACHMANRICHARD<IN>ZONE_AUTHOR) <OR>(킹스테판<IN>ZONE_AUTHOR) <OR>(킹스티븐<IN>ZONE_AUTHOR) <OR>(바크먼리처드<IN>ZONE_AUTHOR))

〈그림 A〉

위의 〈그림 A〉에 나타난 질의문을 통해, 이용자가 입력한 저자명 '킹, 스티븐' 이외에 〈그림 1〉의 전거레코드에 포함된 모든 다른 표기 형태가 함께 검색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1>과 <그림 1>을 종합하면 국립중앙도서관전거제어는 인명전거제어가 다른 이름과 다른 표기 형태를 지원해야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전거제어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검색된 레코드들 가운데에는 <그림 3>의 간략목록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의 역사>, <시공간의 미래> 등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의 저작들이 15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검색되는 이유는 <그림 A>에 제시한 질의문의 맨 앞에 위치한 '(킹<AND>스티븐) <IN>ZONE_AUTHOR)'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동일 질의문의 뒷부분에 포함된 '(킹스테판<IN>ZONE_AUTHOR) <OR>(킹스티븐<IN>ZONE_AUTHOR) <OR>(바크먼리처드<IN>ZONE_AUTHOR))'이 이러

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하여 후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의 인명색인 구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리 시스템에서 인명을 MARC 레코드의 해당 필드에서 추출한 후 색인항목으로 나열하기 위하여 먼저 인명 중간에 포함된 구두점과 빈칸을 지우고 하나의 스트링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위 질의문에 나타난 인명이 '킹스테판', '킹스티븐', '바크먼리처드'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색인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일 것이다.

킹스테판
킹스티븐
호킹스티븐

<그림 B>

단행본 116건	연속간행물 0건	학위논문 0건	해외수집기록물 0건	기사색인 0건	고서 0건	비도서 0건	목차/초록 18건				
번호	표제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도	언어	청구기호	자료이용하는곳	구분	목차	원문	선택
1	그것, 상, 중, 하	스티븐 킹 지음 ; 정진영 옮김	황금가지	2004	kor	843-3-507-7-9	문학실 (2층)	일반도서			☐
2	스티븐 킹 단편집 : 스펀티온 크루, 상, 하	스티븐 킹 [지음] ; 조영학 옮김	황금가지	2006	kor	843-6-191-1-2	문학실 (2층)	일반도서			☐
3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	저자: 스티븐 호킹, 레오나르도 물로디노프 ; 역자: 전대호	까치	2006	kor	443,1-6-4	자연과학실 (4층)	일반도서			☐
4	시공간의 미래	지은이: 스티븐 호킹, 킵 손, 미고르 노비코프, 티모시 페리스, 앨런 라이트먼, 리처드 프라이스 ; 김성원 옮김	해나무	2006	kor	420,12-6-1	자연과학실 (4층)	일반도서			☐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저자명 '킹, 스티븐' 검색 결과 간략목록(일부)

앞과 같은 형태의 색인에서 〈그림 A〉에 나타난 질의문으로 검색한 결과에 '스티븐 호킹의 저작이 함께 검색되었다는 것은 질의문 맨 앞에 위치한 '(킹<AND>스티븐) <IN>ZONE_AUTHOR)'의 검색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쌍방향 절단검색인인 '*킹* AND *스티븐*'으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며, 이 같은 방식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거제어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구현상 문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제어 레코드가 불완전한 것과 더불어 검색결과와 신뢰성을 한층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2) KOLISNET과 공공도서관들의 사례

KOLISNET과 열 개의 공공도서관들은 같은 외국인명의 다른 표기 형태들을 다루면서, 서지레코드의 책임표시사항(MARC 245 필드의 \$d)에 기술된 저자명의 표기 형태대로 표목을 만들어 주었다. 이 도서관들은 진해시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KOLAS 계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검색의 결과에서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명 '킹, 스티븐'과 '킹, 스테판'으로 각각 검색할 수 있고, 각각의 결과 집합에 포함된 레코드들은 상이하나, 이들 사이에 아무런 참조나 링크를 만들어주지 않아, 서로의 관계나 존재를 알 수 없다.

공공도서관들이 이처럼 이름의 다른 형태를 각기 표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목록규칙에는 일치한다. 〈한국목록규칙〉 4판(한국도서관협회 2003)은 21.1 '접근점의 선정', 21.1.2 '인명' 항목에서 "기술부의 책임표시에 기재된 인명을 접근점으로 선정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그리고 21.2 '접근점의 형식과 표기방법'에서 21.2.1.2 '인명'은 "1) 성과 명의 형식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 인물이 복수의 상이한 형식으로 식별되는 경우, 각각의 형식을 접근점으로 한다. 상이한 형식의 이름 상호간은 참조로 연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최석두(1993)의 무전거시스템의 기초인 대표표목의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우회하여 목록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도서관들이 '킹, 스티븐'과 '킹, 스테판'이라는 이름의 표기 형태로 각각 표목을 만들어 준 것은 목록레코드 작성에는 적절하나, 전거제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다른 형태 사이에 참조로 연결해줄 장치가 없어 혼란스런 검색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개의 도서관은 전거제어는 물론 목록규칙을 정확히 따르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진주시립중앙도서관의 목록을 저자명 '킹, 스티븐'으로 탐색한 결과 48건의 서지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었으나, '킹, 스테판'으로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킹, 스티븐'의 검색 결과 안에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표시사항(MARC의 245필드 \$d)에 '스테판 킹'으로 기술된 서지레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이 도서관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킹, 스티븐'을 채택 표목의 형태로 통일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스티븐킹'(3건) 혹은 '스테판킹'(2건)의 형태로 표목을 채택한 레코드들도 검색되고, 〈신들린 도시〉 1권이 '킹, 스티븐'을 표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들린 도시〉 2, 3, 4권은 '스티븐킹'을 표목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이 도서관 목록에서 전거제어의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서양인명이 영어와 한글로 각각 표기된 경우를 다시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어린이 그림책 작가인 Eric Carle의 이름을 한글 표기 형태인 '에릭 칼'과 영어 표기 형태로 검색한 결과는 각각 10건과 23건의 서지레코드를 포함하였고, 이들 가운데에는 중복된 레코드들이 있었다. <그림 5>는 저자명 '칼, 에릭'으로 검색한 결과로서 나온 서양서의 서지레코드이다. 이 레코드 안에는

두 개의 700 필드에 '칼, 에릭'과 'Carle, Eric'이 각각 들어가 있고, 첫 번째 700 필드 섹터에 이름의 형태로 레코드가 검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레코드는 또한 저자명 'Carle, Eric'으로 찾았을 때도 두 번째 700 필드 섹터에 검색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서지레코드 안에 넣어 준 정보를 근거로 해서 검색했을 뿐, 결국 표목 형태를 선정하는 데 오류가 있고,전거제어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메타정보보기

간략정보 상세정보

LDR : 00531cam a2200229 k 4500

TAG	IND	Contents
001		0000032762▲
005		20060718210212▲
008		961207s1991 ulk 000 f kor ▲
020	—	▼c₩4000▲
041	1.	▼akor▼heng▲
082	—	▼a813.54▼219▲
090	—	▼a843▼b킹580▲
100	1.	▼a킹, 스티븐▲
245	10	▼a미저리 /▼d스테판 킹 지음;▼e미광식 옮김.▲
260	—	▼a서울 :▼b성정출판사,▼c1991.▲
300	—	▼a342p. ;▼c23cm.▲
507	10	▼aKing, Stephen▲
507	10	▼tMisery▲
650	—	▼a소설▼z미국▲
653	—	▼a미저리▼aMISERY▲
700	1.	▼a미광식,▼e옮김▲

<그림 4> 진해시립도서관의 서지 레코드 사례: 저자명 '킹, 스티븐'

메타정보보기

간략정보 상세정보

LDR : 00513cam a2200169 k 4500

TAG	IND	Contents
001		0000124988▲
005		20060718224204▲
008		060712s2006 us a j 001a eng ▲
020	—	▼a0140545190 :▼c₩12,000▲
090	—	▼a747▼b미839▲
100	1.	▼aMartin, Bill Jr.▲
245	10	▼aPolar Bear, Polar Bear, What Do You Hear? /▼dBill Martin Jr. 지음 :▼eEric Carle 그림.▲
260	—	▼aNew York :▼bPuffin Books,▼c1991.▲
300	—	▼a1책 :▼b삽도 :▼c26 cm +▼e카세트테이프 1개, CD 1장.▲
700	1.	▼a칼, 에릭▲
700	1.	▼aCarle, Eric▲

<그림 5> 진해 시립도서관의 서지 레코드 사례: 저자명 '칼, 에릭'

한편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포천분관(포천도서관)과 부산 명장도서관의 목록에서도 저자명 '킹, 스테판'으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경기 포천도서관은 종합목록인 KOLISNET에서는 '스테판 킹'의 〈부작〉을 소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자관 목록에서는 아무런 레코드를 검색할 수 없다. 목록을 표제로 검색한 결과, 〈부작〉 1, 2, 3권이 각각 별개의 서지레코드로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저자는 '피터 스트로브'로 되어 있고, 공저자인 '스티븐 킹'의 이름은 어떤 형태로도 기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그 결과는 개별 도서관 검색에서 문제와 당연히 일치되어야 할 국립중앙도서관의 KOISNET 과도 불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 명장도서관은 책임표시사항에 '스테판 킹'으로 기술되거나, 표목이 '킹, 스테판'으로 채택된 레코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서관 가운데 대부분이 저자명 킹, 스티븐'으로 찾았을 때, 〈내 짝꿍 에이미〉, 〈아멜리아 할머니의 정원〉, 〈작고 파란 꾸러미〉와 같은 어린이책 작가인 '킹, 스티븐 마이클'의 저작도 함께 검색해냈다. 예를 들어 보령웅천도서관은 검색된 18건의 레코드 가운데 3건이 스티븐 마이클 킹이 그리거나 지은 세 권의 어린이 도서의 서지레코드였다. 서울정독도서관 역시 57건 가운데 4건의 레코드가 스티븐 마이클 킹의 저작이었고, 진해시립중앙도서관은 48건 가운데 6건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위 3.1절(1)항에서 설명하였다. 이는 KOLISNET과 KOLAS-2 시스템의 구축회사가 동일하므로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2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 베스트셀러가 된 여러 작품을 발표하여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그 저작을 소장하고 있는 시인, 작가 겸 번역가인 류시화의 개명 전후 이름을 검색해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어느 도서관의 목록에서도 이름들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전거레코드가 존재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최근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콩쿠르상 수상작가인 로맹가리가 에밀아자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다시 한 번 콩쿠르상을 수상했으나, 아무도 이들이 동일인이었음을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동일인물이 개명을 하였을 때 이를 사서들조차 추적하기 어려움을 알려주는 일화이나, 류시화나 로맹가리와 같은 작가들의 서로 다른 이름들 사이에 목록에서 참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관계를 밝혀주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은 검색 시에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인명전거제어의 중요성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여기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동명이인)에 대한 문제가 아울러 드러났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거제어가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식별하기와 개념화하기는 둘 이상의 개체가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Patton 2005). 류시화의 개명 전 이름인 안재찬으로 탐색할 때, 대부분의 도서관 목록에서 한 두건의 서지레코드만 검색해 냈다. 그러나 KOLISNET의 목록은 종합목록이라는 특성 상 그 이름으로 76건의 레코드를 검색해

냈고, 그 안에는 시인 안재찬의 시집〈그리고 우리는 꿈꾸기 시작하였다〉, 다른 안재찬의 〈표준편지투〉, 수학자 안재찬의 〈드림 수리영역: 수학〉 등의 책들이 혼재하여 있고, 일일이 레코드를 보지 않은 한 이들을 구별할 수 없다.

특히 종합목록에서 이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검색된 서지레코드의 집합이 커지게 되고, 그 검색결과에서 적합한 자료를 찾는 책임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목록의 이용자들은 많은 수의 레코드가 검색될 때, 브라우징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Yee and Layne 1998). 다른 나라보다 특히 국내에 동명이인이 많으며(권수미 1998), 동명이인을 구별하는 기능이전거제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목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전거제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보다 명백하며 이는 특히 우리나라 도서관이 당면한 과제이다.

4. 개선 방안의 제안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은 한 마디로 “공공도서관 목록에전거제어가 되어있지 않거나 매우 부족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은 예외적으로 서양인명의 다른 한글 표기 형태들에 대하여 표목을 통일하고, 채택되지 않은 형태로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면에서전거제어를 적용시키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내용과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다른 열 개의 공공도서관의 목록이나, 이들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관의 종합목록인 KOLISNET의 목록도 모두전거제어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서지레코드가 질적으로 향상될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도 부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전거제어가 없이는 편목자가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모든 가능한 이름의 형태를 생각해내야 하는 부담이 이용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Maxwell 2002, 7). 더욱이 본 연구의 범위는 아니나전거제어의 현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명백하게 관찰된 서지 레코드의 정확성과 일관성 결여, 검색 방법이나 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전거제어마저 부재함에 따라, 이 도서관들의 목록은 개인저자명의 발견도구로서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제안은 공공도서관 목록에도전거제어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범위와 수준의전거제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전거파일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문제를 아울러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공론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공공도서관 목록에서 개인저자명에 대한 검색 재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전거제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전거제어를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전거파일을 구축 및 유지하는 데 관련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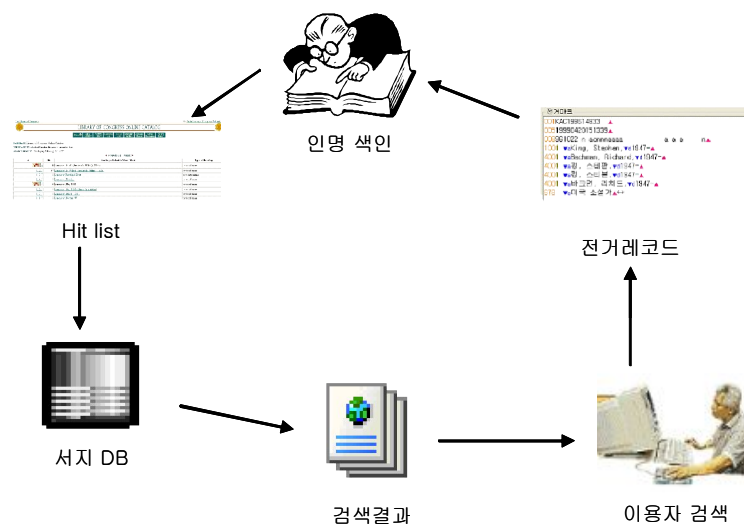
4.1 검색 시스템 보완

전거제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단시간 내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나, 공공도서관의 공유목록을 표방하는 KOLISNET에서만이라도 검색시스템을 보완하고,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레코드를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현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저자명 검색을 하면, 해당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 간략정보(hit list)를 보여주는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해당 이름을 가진 서지의 간략정보를 보여주어 이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전거제어를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없으나, 적어도 KOLISNET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된 전거레코드를 활용하여 검색효과(재현율)를 높일 수 있다. 인명 전거레코드가 모든 인명에 대하

여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KOLISNET에서의 검색을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색문이 전거레코드를 먼저 찾아본 후 검색을 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적 보완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림 6>은 서로 다른 표기 형태의 저자명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거레코드가 구축되어있다는 전제에서는 먼저 이용자가 특정 형태의 저자명을 입력하면 해당 저자명을 먼저 전거레코드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킹, 스티븐'을 이용자가 저자검색에서 입력하면 시스템은 먼저 전거레코드를 검색한다. '킹, 스테판', '마크만, 리처드', 'King, Stephen' 등의 전거레코드에 기입된 동일 저자명의 다른 표기 형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서지색인(저자명 색인)에서 검색한 후 해당 서지를 모두 찾아서 검색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그림 6> 전거시스템을 사용한 검색

한편 이러한 흐름을 가지는 검색이 외국인명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몰년으로 이름이 구분되므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명은 동명이인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체계가 옆에 한자를 넣어주는 방식이 있으나, 이 경우 또한 저자의 한자명을 알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생몰년 역시 쉽게 알 수 있지는 않다. 일단 생몰년이나 한자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되었다는 전제에서 '이광수'라는 저자명을 질의문으로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광수	3 건
이광수(李光洙), 1892-1950	15 건
이광수(李光洙)	2 건
이광수(李光秀)	5 건
〈그림 C〉	

위는 '이광수'라는 저자명에 대한 검색결과 간략정보(hit list)이다. 물론 이렇게 동명이인을 구분하는 방법도 이용자가 자신이 찾는 저자의 한자명을 모를 경우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한자를 아는 경우, 만약 해당 이름에 대한 저자명 전거레코드가 생성되어 있다면 관련된 이형 저자명으로 목록된 자료도 모두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소한 전거제어가 이루어진 인명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결국 시스템적 보완도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노력인 전거레코드의 존재가 없이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선행조건이 만족되어도 국내 시스템에서 전거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명

은 동명이인이 많아 위와 같은 단순한 논리적 시스템 흐름도 실제로 구현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림 C〉에서 두 번 째 나타난 '이광수(李光洙), 1892-1950'와 그 다음에 나타난 이광수(李光洙)를 구분하는 것은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위와 같이 검색결과 간략정보를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색인에서 '이광수'를 검색하고 그에 해당하는 레코드들을 검색한 후, 서지레코드에 나타난 해당 필드를 비교하여 검색결과 내에서 같은 부류를 다시 나누는 소위 "group by" 절차를 시스템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고 이는 시스템 반응 시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절차도 우리나라 인명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 이광수(李光洙)라는 이름 뒤에 생몰년을 붙여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림 C〉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름을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동명이인의 문제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의 시스템 '마에스트로-Y'에서는 각 표목에 전거레코드 번호를 목록 시 부기하여 해결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앞의 방법은 다른 언어의 시스템에서 유례가 없으나, 심각한 수준의 동명이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목록자가 서지레코드를 구축하면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전거레코드와 연계를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적 시간소요를 요구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동근(2000)이 제안한 것처럼 저자의 활동분야를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월سن출판사에서 1946년부터 간행하는 *Biography Index*에서는 채택하고 있었으

MARC		도움말
001	000000071038	
008	910117s 1979 ko 000af kor	
040	a211046c211046	
082	a811.081218	
245	00 a嵯峨哀史 / d李光洙 著.	
260	a서울 : b又新社, c1979	
300	a361 p. ; c19 cm	
440	00 a李光洙 代表作選集 ; v8	
700	1 a이광수 h李光洙 wA00103692	
940	0 a단풍애사	
949	a이광수 대표작선집 ; v8	

〈그림 7〉 연세대학교 도서관 서지레코드에서 전거 연계의 예

나, 이를 서지레코드에 적용할 경우에는 활동 분야를 선택한 준거(準據)를 또한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에서는 ‘정영미’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을 ‘문헌정보학’이라는 활동분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분야를 목록자에 따라서는 단순히 ‘정보학’이라고 기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활동분야 기술의 일관성과 깊이(분야의 대분류 및 상세분류)를 제시하는 준거를 결정하고 이에 준하여 인명을 기술한다면 앞서 언급한 “group by”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변별력 있는 검색결과 간략화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의 사례

〈그림 6〉과 같은 흐름을 같은 시스템의 예를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라고 함)의 OPAC에서 볼 수 있다. LC 목록에서 저자명 ‘king, stephen’을 탐색한 결과는 〈그림 8〉처럼 서지레코드 건수를 포함한 이름표 목록 리스트를 보여준다. 온라인 목록에서 표

목들은 보통 세 가지 주요한 그룹이나 맥락에 따라 색인이 된다. 즉, 이름색인, 서명색인, 및 주제색인이 바로 그것이다. 이름색인은 개인명이라면 MARC 포맷의 100, 700, 및 800 필드에서 추출하여 생성되고, 단체명은 110, 710, 및 810 필드, 회의명은 111, 711, 및 811 필드로부터 생성된다(Fritz and Fritz 2003). 따라서 서지레코드들은 개인명 표목 필드들 가운데 어디에든 ‘king, stephen’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출된 것으로, 이용자들은 일단 이 리스트로 이름표목의 형태를 확인하고 서지레코드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앞에서 3.1절의(2)항에서 검색결과에 포함된 ‘킹, 스티븐 마이클’과 같은 이름들은 관련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C의 이름 표목 리스트에서는 채택된 형태의 표목에 [More Info]라고 표시해 줌으로써, 이 이름표목과 관련된 참조(References) 정보가 있음을 보여준다.

LC 전거파일(<http://authorities.loc.gov>)에서 검색한 이름표목 리스트(그림 9 참조)는 ‘King, Stephen, 1947-’이 채택표목(Authorized Heading)이지만, ‘참조와 주가(Ref. & Notes)’가

있음을 보여주고, 해당 표목을 클릭하면, 같은 인물에 대하여 'Bachman, Richard'와 'Druse, Eleanor'라는 이름으로도 채택된 표목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전거레코드에서는 500 필드에 이 이름들에 대한 참조가 주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국가목록 AMICUS도 LC와 마찬가지로 저자명 탐색을 브라우저 탐색으로 설정하여, 'king, stephen'을 탐색한 결과는 각각 서지레코드 건수를 포함한 이름표목 리스트를 보여주고, 이름표목 리스트에서는 이름표목

[References]라고 각각 표시해 줌으로써, 이름표목과 관련된 참조(References)가 있고, 이름표목 리스트에서 참조된 다른 이름으로도 갈 수 있는 예를 보여준다.

LC나 AMICUS 목록처럼전거제어가 적용된 모든 관련된 표목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관계가 목록의 서지리스트에까지 반영되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아는 이름, 혹은 이름의 형태로 찾고, 구별하며 참조하여 관련된 모든 서지레코드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색에 도움을 줄 것임은 명백하다.

The Library of Congress >> Go to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Help](#) [New Search](#) [Search History](#) [Headings List](#) [Titles List](#) [Request an Item](#) [Account Status](#) [Other Databases](#) [Start Over](#)

DATABASE: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YOU SEARCHED: Author/Creator Browse = king, stephen
 SEARCH RESULTS: Displaying 1 through 25 of 25

◀ Previous Next ▶

#	Hits	Headings (Select to View Titles)	Type of Heading
[1]	3	King, Stephen	personal name
MORE INFO [2]	146	King, Stephen, 1947-	personal name
[3]	2	King, Stephen, 1962-	personal name
[4]	1	King, Stephen A., 1964-	personal name
[5]	2	King, Stephen B.	personal name

〈그림 8〉 LC 목록: 저자명 브라우저 'king, stephen' 검색결과: 이름표목 리스트(일부)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Help](#) [New Search](#) [Search History](#) [Headings List](#) [Start Over](#)

SOURCE OF HEADINGS: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YOU SEARCHED: Name Authority Headings = king, stephen
 SEARCH RESULTS: Displaying 1 through 25 of 25

◀ Previous Next ▶

#	Bib Records	<i>select icon in first column to...</i> View Authority Headings/References	Type of Heading
 1	5	King, Stephen	personal name
 2	0	King, Stephen, 1931-	personal name
 3	155	King, Stephen, 1947-	personal name
 4	0	King, Stephen, 1959-	personal name

〈그림 9〉 LC 전거파일: 개인명 'king, stephen' 검색 결과 이름표목 리스트 일부

SOURCE OF HEADINGS: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INFORMATION FOR: King, Stephen, 1947-

Please note: Broader Terms are not currently available

Select a Link Below to Continue...

Authority Record

Scope Note

See Also: Bachman, Richard

See Also: Druse, Eleanor

[Help](#) - [Search](#) - [Search History](#) - [Headings List](#) - [Start Over](#)

〈그림 10〉 LC 선거파일: 이름표목 'King, Stephen, 1947-' 의 선거 지시

LC Control Number: n 790303/
HEADING: King, Stephen, 1947-
000 01550cz a2200301a 450
001 2355752
005 20060307100103.0
008 790802z| aannaaab| aaaa
010 __|a n.79063767|z n.87125504
035 __|a (OCaLC)ocaa0296711
040 __|a DLC|b eng|c DLC|d DLC|d OCH|d DLC|d OCaLC|d OCH|d DLC|d OCaLC|d DLC
053_0|a PS3561.T483
100_1|a King, Stephen,|d 1947-
400_1|a King, Steven,|d 1947-
400_1|a King, Stren,|d 1947-
500_1|w cmnc|a Druse, Eleanor
500_1|w cmnc|a Bachman, Richard
663 __|a For works of this author written under other names, search also under|b Bachman, Richard,|b Druse, Eleanor
670 __|a His Carrie, 1974.

〈그림 11〉 LC 전거레코드: 'King, Stephen, 1947-'(부분)

4.2 공유 전거파일의 구축과 협력

앞 절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적절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거레코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체하였다. 따라서 도서관마다 어떤 형태로든 전거파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제안하는 바는 공유 전거파일을 구축하고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외국의 미국의회도서관이나 서지유틸리티인 OCLC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식이다.

전자파일의 기능은 전자제어를 위해서 결정을 문서화하고, 참고도구 역할을 하고, 접근점 형태를 제어하며, 서지파일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

고, 서지와 전자파일을 링크하는 것이다(Patton 2005). 전자제어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며 (Vellucci 2004), 목록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Byrum, Jr. 2005; Tillett 2001). 전자레코드 작성을 위한 비용이나 품질관리 등의 면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이 독자적인 전자파일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공유 전자파일을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전자레코드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분산되고, 서지레코드가 교환될 수 있는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Danskin 1996).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들도 각자 전자파일을 구축하려고 애쓰기보다, 공유 전자파일을 만들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을 보면, 한국도서관협회가 수집한 전산화 현황의 설문에 응답한 452개 도서관 가운데, 단지 6개 도서관이 개인명, 단체명 전거레코드 151,189 건의 구축을 보고하였고, 2개관이 통일서명(총서명) 71,971건, 주제명 44,498 건을 구축하였음을 각각 보고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모두 267,658건의 전거레코드들이 작성되어 있다. 같은 시점에서 대학도서관은 15개 도서관이 개인명과 단체명 1,476,077건 구축, 3개의 도서관이 회의명 3,327건 구축, 및 5개 도서관이 각각 통일서명(총서명) 46,004건 및 주제명 28,288건의 구축을 보고하여, 모두 1,553,696건의 전거레코드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06).

대학도서관에 비하면, 공공도서관이 현재까지 구축해 놓은 전거데이터베이스의 규모는 매우 작고, 또한 개별 도서관이 각자 전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분명히 상당수의 중복된 전거레코드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체적인 전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도서관이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유 전거파일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목록에서 전거제어를 수행하고자 하지만 아직 자체적인 전거파일을 구축하지 않은 여러 도서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유 가능한 전거파일을 구축하도록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협력 구축의 방안은 차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공유전거파일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택할 수 있는 우선적인 방법은 현재 국립중

앙도서관이 구축해 놓은 전거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통계인 2005년 12월 현재 약 11만 건을 수록하고 있는데, 국내도서 중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일서, 중국서 등에 나타나는 개인명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단체명을 포함하고 있어(국립중앙도서관 2006), 아직은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적어도 공공도서관들이 인명의 제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거레코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KOLISNET을 구축 및 유지하면서 공공도서관들로 하여금 서지레코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전거데이터베이스 또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개의 도서관들이 전거레코드 생성을 위해 투입해야 할 노력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개별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외부의 전거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면, Dudley(2006)가 제시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관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첫째, 개별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베이스를 자관 전거파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자관 온라인 시스템에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갱신해 준다. 전거표목과 서지레코드의 해당 표목 사이에 다이내믹 링크를 해준다. 그리고 로컬 전거레코드는 통합 파일을 하지만, 특수 코드로 구별해 준다.

둘째, 개별 도서관이 자관의 모든 표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고, 필요한 대로 레코드를 반출하거나 다운로드한다. 그리고 자체의 전거파일을 구축한다. 이 경우엔 필요한 대로 로컬 전거레코드를 추가하

고, 전거파일과 서지레코드 사이에 다이내믹 링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표목에 대하여 자체적 결정을 내리며, 자관 전거파일을 구축한다.

개별 도서관이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 최근 정보기술 및 시스템의 발전은 위와 같은 처리에서 기계적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매우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다. 해외의 통합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들은 편목모듈에서 전거레코드의 편리한 접근, 전거파일에서 전거확인 등이 표준기능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reeding 2004).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관 자동화시스템에서는 전거레코드의 생성, 수정, 편집, 삭제, 저장, 외부소스에서 단일레코드 혹은 문치레코드의 반입과 반출, 전송, 교환, 공유, 서지레코드 및 관련 전거레코드들 사이의 링크와 검색 등 자동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KOLAS-2의 배포라는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첫째, 먼저 보유 전거레코드를 국립중앙도서관보다 먼저 전거제어를 시작한 대학도서관과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통합함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인 국가 전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조직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거제어의 범위는 단시간에 확장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만 보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제어에 대한 질적 문제가 뚜렷이 대두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둘째,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된 KOLAS-2에 전거제어 모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 다른 확일적

시스템의 배포보다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개별 도서관들은 자관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든가 또는 전거제어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이 확립되었는가에 상관없이, 국가 및 국제표준에 근거한 전거데이터의 교환과 공유가 가능함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전거제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하는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전거제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카드목록과 같은 로우텍(low-tech) 시스템에서도 이루어지던 전거제어를 하지 않는 관행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전거제어는 전거레코드를 이루는 그 내용(contents)이 중요하지 시스템 자체의 하이텍(high-tech) 여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목록에서 시스템은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Coyle (2000)의 말처럼 레코드 포맷, 그리고 부연하면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contents)이 중요하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개별 도서관이 이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찾도록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도서관들이 완벽하고 상세한 전거레코드를 생성하거나 외부의 소스에서 입수한다고 해도, 또한 목록이 적절한 검색 및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전거제어가 적용될 수 없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목록에서 표목 혹은 접근점으로 표현되는 정보에 구조, 일관성과 통일성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이 하여금 이 정보와 관련된 모든 서지레코드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즉 목록검색의 재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서전거제어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국립중앙도서관과 KOLISNET의 목록과 더불어 열 개의 공공도서관 온라인 열람목록을 대상으로, 개인저자명에 대한전거제어의 적용 여부와 검색의 문제점을 검토해보았다. 인명에 관련된 여러 다양성의 사례들 가운데(최석두 1993), 서양인명의 다른 한글 표기 형태, 같은 인물의 다른 이름들로 이들 목록을 탐색하고, 부수적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구별, 서양인명의 영어 표기 형태와 한글 표기 형태의 처리에 대해서도 일별한 결과, 완전하지는 않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어느 도서관도전거제어를 적용하지 않음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탐색하는 개체인 저자명 검색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목록에 적절한 수준과 범위의전거제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그러기 위해 여러 도서관들이전거레코드를 공유함으로써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하고, 전체

적인 목록의 품질까지 높일 수 있는 도구로서 공유전거파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전거데이터베이스를 공유전거파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검색시스템 측면에서 검색 질의 시 바로 서지리스트로 가게 하는 현재의 방식을 보완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서지레코드 건수를 포함한 이름표목 리스트를 거쳐 서지리스트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이에 관련된 개인명의 식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목록에서전거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수행되었으나, 실제로전거제어를 개별 도서관에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식의 변화, 전문 인력의 충원이나 교육, 비용, 외주 증대에 따른 목록의 전반적 품질 저하 등에 관련된 실질적 문제 등은 다루지 못하였고, 구체적인전거파일의 구축 방법 및 도서관들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차후에 이 같은 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형근. 2001. KISTI 학술지 종합목록의 서명·단체명전거파일 구축 연구. 『정보관리연구』, 32(3/4): 73-95.
- 국립중앙도서관. 2006. “홈 페이지: 국가서지 --전거파일.” [online] [cited 2006.6.9] <http://www.nl.go.kr/nation/user/nation_moon/intro.php>.
- 국립중앙도서관. 2006. 『국가전거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 정책세미나”』. 2006년 6월 26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권수미. 1998. 『수작업전거제어와 자동전거제어의 비교연구: 저자명전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관학과.
- 기민도. “국립중앙도서관 전거파일 구축 현황과 계획.” 『국가전거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 세미나”』. 2006년 6월 26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김성희. 2005.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통한 맥락정보의 구축 및 교환: ISAAR(CPF) 2판과 EAC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61-88.
- 박선희. 2006. 대학도서관 전거파일 구축 현황: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전거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2006년 6월 26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박홍석. 2001. “한국의 대학도서관 전거 DB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Record of Workshop on Authority Control amo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86-93.
- 심경, 윤정옥. 2006. 공공도서관의 전거제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 151-178.
- 오동근. 2000. 『학술정보 전거 DB 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윤정옥. 20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회의명·단체명 전거파일 구축 연구. 『정보관리연구』, 33(3): 69-85.
- 윤정옥. 2006. 국가 전거파일의 협력구축을 위한 과제와 방안. 『국가전거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2006년 6월 26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최석두. 1993. 무전거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4): 233-264.
- 한국도서관협회. 2006. “2005년도 도서관 전산화 실적.”
- Breeding, Marshall. 2004. “Integrated Library Software: A Guide to Multiuser, Multifunction System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0(1): 1-88.
- Byrum, Jr., John D. 2005. “NACO: A Cooperative Model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a Shared Name Authority Databas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8(3/4): 237-249.
- Coyle, Karen. 2000. Is MARC dead? [online] [cited 2006. 7. 19] <<http://www.kcoyle.net/marcdead.html>>.
- Danskin, Alan. 1996. “International Standards in Authority Data Control: Costs and Benefits.” In: *Proceedings of the 62nd IFLA General Conference*, August 25-31, 1996.” [online] [cited 2006.6.9] <<http://www.ifla.org/IV/ifla62/62-dana.htm>>.
- Dudley, Virginia. 2006. “Brief Introduction to Authorities.” [online] [cited 2006.6.9] <<http://www.minitex.umn.edu/train-conf/webinars/authorities.pdf>>.
- Fritz, Deborah A, and Fritz, Richard J. 2003. *MARC 21 for Everyone: A Practical Guide*. Chicago: American Library

- Association.
-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IME ICC).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Final Draft Based on Responses through Dec. 2004 showing further recommended changes from Buenos Aires August 2004 and Cairo Dec. 2005(Apr. 3, 2006 Draft).
- IFLA UBCIM Working Group on Functional Requirements and Numbering of Authority Records(FRANAR). 2005.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Records: A Conceptual Model." [draft]. [online] [cited 2006.5.15] <<http://www.ifla.org/VII/d4/FRANAR-Conceptual-M-Draft-e.pdf>>
- IFLA Working Group on GARE Revision. 2001. *Guidelines for Authority Records and References*. 2nd ed. UBCIM Publications -- New Series Vol. 23. Muchen: K.G. Saur.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online] [cited 2006.6.9] <<http://authorities.loc.gov>>.
- Library and Archives Canada(LAC). "AMICUS." [online] [cited 2006.6.9] <<http://www.collectionscanada.ca/amicus/>>.
- Lee, Chi-ju, and Lee, Jae-sun. 2001. "Author Name Authority Control in KORMARC." *Record of Workshop on Authority Control amo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pp.58-85.
- MacEwan, Andrew. 2004. "Project InterParty: From Libaray Authority Files to E-Commerc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9(1/2): 429-442.
- Maxwell, Robert L. 2002. *Maxwell's Guide to Authority Work*.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Patton, Glenn B. 2004. "FRANAR: A Conceptual Model for Authority Data."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8(3/4): 91-104.
- Patton, Glenn E. 2005. "FRAR: Extending FRBR Concepts to Authority Data." In: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1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August 14th-18th 2005, Oslo, Norway. [online] [cited 2006.6.9] <<http://www.ifla.org/IV/ifla71/papers/014e-Patton.pdf>>
- Pitti, Daniel V. 2004. "Creator Description: Encoded Archival Contex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8(3/4): 201-226.
- Taylor, Arlene G. 2004. *Wynar's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9th ed. re.(Westpost, Conn.: Libraries Unlimited), p. 491. 재인용: Wolverton, Jr., Robert E. 2005. "Becoming an Authority on Authority Control: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Resourc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50(1): 31-41.

- Tillett, Barbara B. 1989. "Consideration for Authority Control in Online Environmen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9(3): 1-12.
- Tillett, Barbara B. 2001. "Authority Control on the Web." In: *Proceedings of the Bicentennial Conference on Bibliographic Control for the New Millennium: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Networked Resources and the Web*, Washington, DC., November 15-17, 2000. Ed. by Ann Sandberg-Fox.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pp. 207-220.
- Tillett, Barbara B. 2006.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presented at IME ICC4, August 16, 2006. Seoul, Korea.
- Vellucci, Sherri L. 2004. "Commercial Services for Providing Authority Control: Outsourcing the Proces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9(1/2): 443-456.
- Vitali, Stefano. 2004. "Authority Control of Creators and the Second Edition of ISAAR(CPF),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8(3/4): 185-199.
- Wolverton, Jr., Robert E. 2005. "Becoming an Authority on Authority Control: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Resourc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50(1): 31-41.
- Yee, Martha M. and Layne, Sara Shatford. 1998. *Improving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